

# 앙증맞은 외모에 폭발적인 퍼포먼스... 감탄사 절로



## BMW '뉴 미니 JCW 컨트리맨'

코너링부터 가속·주행능력 '일품' 생활 속 레이싱 즐기기 안성맞춤

미니(MINI) 중의 MINI라 일컬어지는 MINI JCW(John Cooper Works: 존 쿠퍼 워크스)를 지난달 29일 강원도 인제스피디움에서 만났다.

미니 JCW는 기존 미니 차량에 몬테카를로 랠리의 우승을 이끈 레이싱 선구자 '존 쿠퍼'의 튜닝 프로그램이 추가돼 더욱 강력한 성능을 선보이는 MINI의 고성능 서브 브랜드다. 특히 귀엽고 앙증맞은 외모를 갖추고 있지만 도로위에서는 폭발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인다.

◆미니 JCW 컨트리맨 서킷 거침없는 질주 이날 시승한 모델은 뉴 미니 JCW 컨트리맨이다. 운전석에 앉아 가속페달을 밟는 순간부터 힘이 느껴졌다. 코너링 또한 일품이고 가속과 주행 능력은 서킷을 돌 때마다 감탄사가 나올 정도로 뛰



강원도 인제 스피디움 서킷을 주행하고 있는 미니 JCW 컨트리맨.

어났다.

뉴 미니 JCW 컨트리맨은 MINI의 전체 라인업 중 가장 크고 강력하다. 2.0L 4기통 JCW 트윈파워 터보엔진을 탑재해 최고출력 231마력, 최대토크 35.7kg·m의 성능을 내며 ALL4 사륜구동시스템이 기본으로 탑재됐다. 안전최고속도는 234km/h 정지상태에서 100km/h까지 6.5초가 걸린다. 그야말로 퍼포먼스 측면에서 뛰어난 강점을 갖추고 있어 '작은 고추가 맵다'는 말이 실감났다.

인제스피디움은 무척이나 리드미컬한 서킷이다. 곡선주로의 비중이 높을 뿐 아니라 트랙 곳곳에 오르막과 내리막이 반복되는 경사진 도로가 많다. 차량의 하중을 완벽하게 옮겨야만 매끄럽게 통과할 수 있는 구간도 있다. 이런 시험장에서 미니 JCW 컨트리맨은 수준급의 움직임을 보여준다.

미니 JCW 컨트리맨은 수준급의 가속력과 함께 기민한 제동성능과 접지력 등을 통해 안정적인 주행을 계속할 수 있었

다. 특히 곡선 구간에서는 운전자의 의도에 따라 핸들링은 유연하게 반응했다. 작은 차체 덕분인지 회전반경도 짧고 간결했다.

미니 JCW 컨트리맨으로 서킷을 주행한 결과 작지만 강력한 성능을 바탕으로 운전자들의 질주본능을 자극하기 부족함이 없음을 확인했다.

### ◆존 쿠퍼의 손자까지 3대에 걸친 인연

미니는 작은 외모와 달리 강력한 심장을 품고 있다. 미니는 1960년대 열린 몬테카를로 랠리에서는 우승을 달성했다. 랠리뿐만 아니라 온로드 레이싱에서도 수차례 우승을 차지할 정도로 뛰어난 성능을 자랑한다.

프리미엄 소형차 브랜드 미니에 힘과 밸런스를 담아낸 주인공은 존 쿠퍼다. 그는 1960년대 포퓰러 1(F 1)에 레이서와 머신 제작자로 참여하며 미니를 당시 동급 최강의 자동차로 변신시킨 인물이다.

존 쿠퍼는 아들과 손자 등 3대에 걸쳐 미니와의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현재 미니 JCW는 클럽맨과 컨트리맨을 포함해 쿠퍼와 해치백 모델 등을 글로벌 시장에서 판매하고 있다.

이날 인제 스피디움을 찾은 존 쿠퍼의

손자이자 미니 홍보대사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찰리 쿠퍼를 만났다.

찰리 쿠퍼는 "미니 브랜드는 타 브랜드와 비교했을 때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며 "특히 영국차의 전통과 철학을 담고있는 미니가 BMW의 기술력을 만나면서 더욱 강력한 주행능력을 갖춘 제품으로 진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훌륭한 제품과 훌륭한 스토리의 밸런스가 잘 맞는 자동차 브랜드는 많지 않다"고 덧붙였다.

다만 JCW의 엔진 최고 출력이 메르세데스-AMG나 BMW M시리즈 등 경쟁 모델보다 수치가 낮다는 평가도 있다.

그는 "미니 JCW는 출력이 전부가 아니라라고 생각한다"며 "미니 JCW가 그 동안 여러 자동차 경주대회에서 성과를 거뒀던 것은 출력이 아닌 새시나 차량의 경량화 등 세부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이뤄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JCW 라인업 중 가장 선호하는 모델에 대해 "개인적으로 자전거를 즐겨 타기 때문에 영국에서는 자전거를 실을 수 있는 컨트리맨을 주로 이용한다"며 "도심에서는 3도어 해치백을 즐겨탄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 1020세대 맞춤형 '갤럭시A8 스타' 단독 출시

### SK텔레콤

오늘부터 5일까지 예약판매

SK텔레콤은 6.3인치 대화면 스마트폰 '갤럭시 A8 스타(Star)'를 6일 단독 출시한다고 2일 밝혔다. 공식 출시에 앞서 3일부터 5일까지 예약 판매를 실시한다.

출고가는 64만9000원이다. 공식지원금은 예약판매가 시작되는 3일 공식은 라인업 'T월드다이렉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갤럭시 A8 스타는 ▲6.3인치 대화면 ▲18.5대 9 비율 베젤리스 디자인 ▲FH D 화질 등 동영상 콘텐츠 감상에 최적화된 사양을 갖췄다. 배터리도 3700mAh 대 용량을 탑재했다.

사진 촬영 기능을 중시하는 고객을 위해 프리미엄급 카메라도 탑재했다. 후면 카메라는 2400만·1600만 듀얼 렌즈 장착, 아웃포커스 기능 등을 지원한다. 전면 카메라는 국내 출시 스마트폰 최초로 2400만 화소를 지원한다. 또 피부톤, 연령 등을 자동 인식해 사진을 보정해주고 조명 방향을 조정할 수 있는 기능도 적용됐다.

갤럭시 A8 스타를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AKG 이어폰이 기본 제공된다. 웹사이트에서 신청하면 1GB 데이터 쿠폰 해



모델이 SK텔레콤의 '갤럭시 A8 스타' 단독 출시 소식을 알리고 있다. /SK텔레콤

택도 누릴 수 있다. SK텔레콤 공식 온라인몰 T월드 다이렉트에서 구매하는 고객은 ▲스마트폰 보호필름 ▲카카오프렌즈 충전패드 가운데 원하는 1종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SK텔레콤은 갤럭시 A8 스타 출시를 기념해 8월 25일부터 26일까지 성수동 카페 '어반소스'에서 'A8 스타 라운지'를 운영한다.

A8 스타 라운지에서는 '별로그침 토크 콘서트'도 진행된다. 25일에는 방송인 김숙, 송은이, 가수 헤이즈 등이 청춘의 꿈을 주제로 관객과 교감한다. 26일에는 청춘의 사랑을 주제로 가수 성시경, 소란, 헤이즈, 작사가 김이나 등이 관객과 소통한다. 토크 콘서트에 참석을 원하는 고객은 9일부터 31일까지 웹사이트에서 사연과 함께 신청하면 된다. /김나인 기자

## 절박한 케이블TV업계

# “이통사 과다경품 제재수단 필요”

자본력으로 유료방송시장 혼란 야기 서비스 같은 근본적 경쟁 감소할 것

케이블TV 업계가 이동통신사의 '과다경품' 지급에 제재를 걸고 나섰다. 자본력을 앞세운 이동통신사가 유료방송 시장의 혼란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업계는 유료방송 시장의 서비스·품질 경쟁 등 근본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현금경품 제공을 금지해야 한다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촉구했다. 이동통신사들이 경품 지급 등을 통해 소비자를 끌어와 케이블 방송 사업자들이 시장에서 배제되는 등 경쟁 상황이 절박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2일 한국케이블TV협회는 "이동통신사들의 과다한 경품 지급이 유료방송 시장을 교란한다"며 이에 대한 규제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통신업계의 관행이던 과다경품 지급의 폐해가 유료방송 시장까지 교란시키지만, 정작 유요한 제재수단 마련은 미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협회는 "경품 중심의 경쟁이 계속될 경우 이용자가 서비스 품질보다 눈앞에 금전적 이익을 기준으로 상품을 선택하게 돼 합리적인 상품 선택을 왜곡한다"며 "차별적인 경품 지급의 결과로 과다경품을 지급하지 않는 케이블방송사업자들이 시장에서 배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내)은 '2017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 전체 결합상품 가입 건수 1675만 건 가운데 이동전화다. 이동통신사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케이블 사업자에게 불리한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

현재 경품은 신규 가입자나 번호이동 가입자에게 제공된다. 이에 대해서도 협회는 "기존 이용자나 장기고객은 해당사항이 없는 혜택으로 명백한 이용자 차별 행위"라고 비판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4월부터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 논의 과정을 거치고 12월 서비스별로 제공하는 경품의 가격을 규정할 고시 개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 개정안은 방송통신 결합상품 가입시 제공되는

혜택 기준을 초고속인터넷은 15만원, 유료방송은 4만원, 인터넷전화(VoIP) 2만원, 사물인터넷(IoT)은 3만원으로 서비스 별로 산정했다. 그러나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 심사에 막혀 시행 여부가 불투명하고, 현실적으로 현금경품 금지가 어려운 것으로 전망된다.

협회는 "현재와 같은 과다 경품 경쟁이 방치될 경우 사업자들은 서비스 경쟁이나 품질 경쟁 같은 방송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확보 노력보다는 마케팅력, 자본력에 더 의존하게 될 것이 뻔하다"며 "모바일 결합상품이 시장의 중심이 돼가는 상황에서 자본력이 강한 통신사 중심으로 빠르게 시장이 재편되는 것은 열위 사업자인 케이블방송사업자들의 붕괴를 불러오게 될 뿐 아니라 유료방송의 비정상화가 고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방송통신 사업자들의 공정 경쟁을 담보하기 위해 현금경품 제공 자체를 금지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제도 마련도 뒤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

## 진에어, 하반기 신입 객실승무원 채용

### 5일까지 온라인 서류접수 진행

진에어가 하반기 신입 객실승무원 채용에 나선다.

진에어는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 채용 계획을 안내하고 7월 5일까지 온라인으로 서류 접수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모집 대상은 남녀 신입 객실승무원으로, 총 100여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지원

자격은 ▲최소 학력 및 신장의 제한은 없으며 ▲해외 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고 ▲영어 및 제2외국어(일본어, 중국어) 능통자는 채용 전형에서 우대한다.

전형 절차는 서류 심사 후 1·2차 면접, 건강 진단 및 체력 검사 순으로 진행된다. 모든 전형 절차를 통과한 최종 합격자는 8월말 경에 입사하여 객실 안전 훈련 및 서비스 교육 과정을 수료한 후 11월부터 업무에 투입 될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 조선시대 미술작 '디지털 병풍'에 담았다

DDP서 '장승업×취화선展' 개최 LG전자, 디지털 사이니지 등 설치

LG전자가 6월 28일부터 11월 말까지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DDP)에서 개최되는 '조선 최후의 거장, 장승업×취화선전(展)'에 디지털 사이니지와 슈퍼 울트라 HDTV를 설치해 조선시대 천재 화가들의 작품을 전시한다고 밝혔다.

간송미술문화재단과 서울디자인재단이 주최하는 '조선 최후의 거장展'은 2002년 개봉한 영화 '취화선' 속 인물로

잘 알려진 조선시대 천재 화가 장승업과 제자 조석진, 안중식의 대표작 56점을 소개하는 자리다.

LG전자는 세계 최초로 32:9 화면 비율을 적용한 88인치 울트라 스트레치 사이니지 8장을 나란히 세로로 배치해 높이 2m, 폭 9m의 웅장한 디지털 병풍을 완성했다. UHD(3840×1080) 해상도를 구현하는 8개 화면은 각각 장승업의 산수도와 화조도, 조석진의 고사인물도, 안중식의 산수도 이미지를 표시한다. 시야각 성능이 뛰어나서 관람객이 어느 위치든 선명한 화질을 감상할 수 있다. 울트라 스트레



서울 중구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DDP)에서 '조선 최후의 거장, 장승업×취화선展'을 찾은 관람객들이 LG 전자 울트라 스트레치 사이니지 8장으로 조성된 디지털병풍에서 장승업의 화조도를 감상하고 있다. /LG전자

치 사이니지는 건물 기둥 등에 세로나 가로로 길게 설치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다. 공항·지하철역을 포함해 각지에서 활용 범위를 넓혀 가고 있다. /신병도 기자 catchrod@